

불어 형성기의 이중모음화와 단모음화 연구

(Diphthongaison et monophthongaison du latin au français)

장 재 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I

1.1 현대불어의 조상인 라틴어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소수 라틴족의 관용어에서 출발하여 로마의 세력 팽창과 더불어 Gaule을 포함한 광대한 복속 지역에서 점차 그 지방의 관용어를 구축하고 헬라이어와 더불어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속된 민족들은 자기 고유의 억양을 버리지 못한 채 라틴어를 발음하게 되어 그들 나름대로 가장 최소의 노력을 들여 편리하게 라틴어를 발음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며, 이것은 라틴어에서 로망어로 진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라틴어에서 로망어로 진화하는 과정의 출발점은 음성적 변화(changement phonétique)라 할 수 있는데, 이 음성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라틴어 고유의 문장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오늘날의 로망제어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음성적 변화에는 각각 자음과 모음에 변화를 주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서, 이 현상들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복합되어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음성변화 중에서도 라틴어 모음에 영향을 미친 이중모음화 현상(diphthongaison)과 또 이것이 약화되어 현대불어로의 진화를 촉진하는 단모음화 현상(monophthongaison)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

게 된 음운론적 원인을 지배음운론의 이론에 비추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2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라틴어의 음운구조는 같은 인도유럽어족인 희랍어와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특히 모음구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주지하다시피 많은 모음연쇄를 갖고 있었던 희랍어가 별로 변화를 겪지 않았던 반면 라틴어는 그 형태를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변화를 겪었다.

현대 서양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 로마문명의 창시자인 희랍과 로마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뿐 아니라 서로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같은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며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유독 음운구조면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모음구조는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강세를 받은 라틴어 모음이 쉽게 이중모음화된 반면 원래부터 다중(séquence de 2, 3, 4 voyelles) 모음연쇄를 허용했던 희랍어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 라틴어의 강세모음이 어떻게 이중모음이 되고, 다시 단모음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변화과정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II

2.1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변화과정에서 가장 흥미있는 현상 중 하나가 이중모음화이다. 이것은 유성음화(sonorisation), 마찰음화(spirantisation), 구개음화(palatalisation)등 자음변화는 변화의 환경(environnement)이 그 현상들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조건으로 제약된 변화(changement conditionné)들인 반면, 이중모음화는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강세(accent)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1) 이중모음화현상은 크게 3 가지로 나누는데 이중 제1부류에 대해서는 장재성(1997) 참조. 여기서는 제2,제3부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1.1 역사적으로 이중모음의 형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i) 강세모음의 이중모음화

이 과정은 다시 둘로 나뉜다.

a) 자발적 이중모음화(diphthongaison spontanée)

개음절 내의 모든 강세모음의 이중모음화

ex. bene > bien, habere > avoir, cor > cuer

b) 제약된 이중모음화(diphthongaison conditionnée)

구개음이나 구개화된 자음 앞에 놓인 강세 개모음의 이중모음화

ex. folia > feuille, oculus > uœil

ii) 축약으로 인한 이중모음화(diphthongaison de coalescence)

이것은 하나의 모음과 모음에서 나오지 않은 반모음을 기원으로 하는 모음의 결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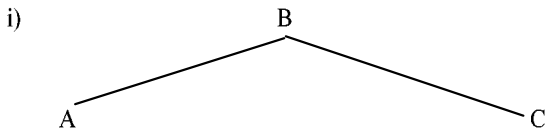
ex. directum > dreit, noctem > nuoit

dreit의 ei는 [ei] < [e] + [i]에서 온 것인데 끝의 [i]는 [k]가 변한 [j]가 모음화되어 나온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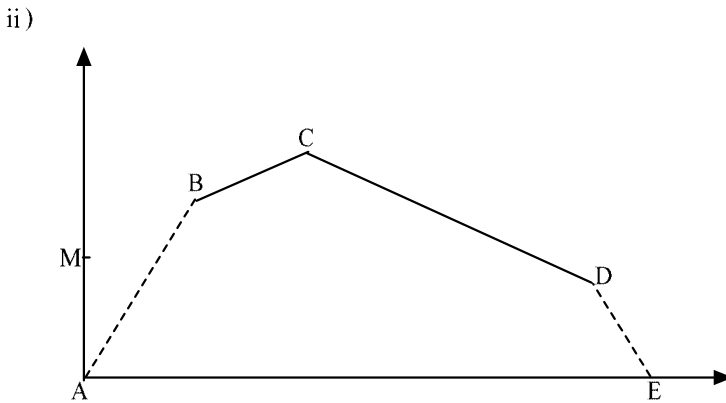
2.1.2 음성적으로 이중모음이란 조음 중에 음색, 공명도, 긴장도 등을 바꾸는 모음을 말한다. 로마어 문헌학자들에게 이중모음이란 한 음절 속에 두 모음이 결합된 것이나, 한 음절 내에서 한 모음이 장음화(allongement)되고 이어서 이화(différentiation)되어 두 개의 모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Pope 1934, La Chaussée 1974)

일반적으로 라틴어에서 불어로 변화할 때의 이중모음화란 조음적 강화의 수단으로써 모음의 장음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그 모음이 강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Fouché (1952)는 한 음절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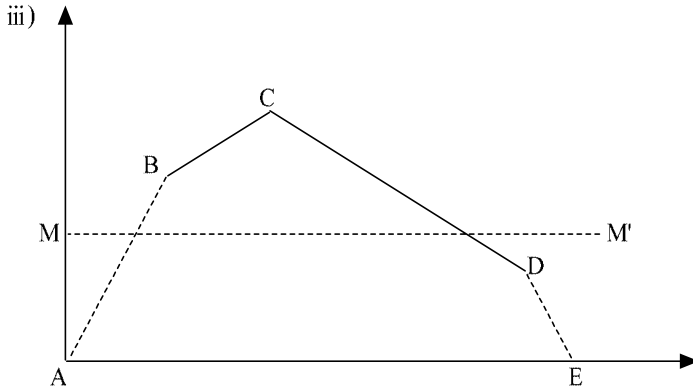


모음은 한 음절의 핵(noyau)을 이루는데, 위와 같이 조음단계를 A(시작 *catastase*), B(지속 *tenué*), C(이완 *metastase*) 3단계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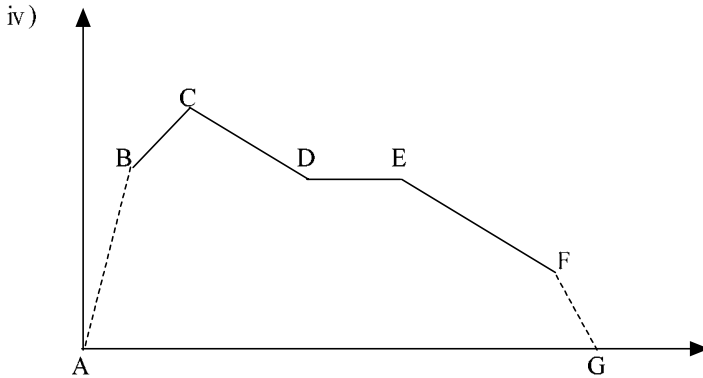


x축은 시작부터 이완까지의 시간(*temps*)을 나타내고, y축은 0부터 무한대까지의 긴장도를 나타낸다. 선 AB는 발성기관의 준비 단계이며 선 BCD는 모음의 지속을 표시한다. 점 B는 모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곳이고, 점 C는 긴장도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곳이며, 점 M은 모음이 들리는 최소점(음향점)이다. 선 DE는 이완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 CD의 일부분이 점 M 밑으로 가면 발성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중모음화란 근육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마지막 분절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중모음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 긴장도의 변화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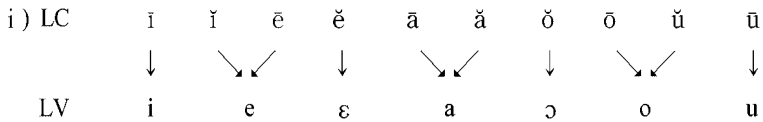


여기에 더하여 이중모음의 조건은 두 모음 중 하나는 다른 것에 비해 약해 지거나 짧아져야 하는데, 만약 두 모음이 같은 강도를 갖고 있다면 hiatus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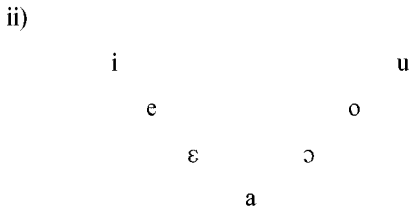
이것은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변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제 이 현상들이 일어날 때의 음운들의 내부구조(structure interne)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변화과정의 원인과 그 변화의 흐름의 자연스러움을 밝혀보고자 한다.

III

3.1 라틴어 모음들의 음량(quantité)은 기원 후 1~3세기에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 모음 변화가 음악적 accent을 갖고 있던 라틴어를 강세 accent의 언어로 변화시킨 것이다. 라틴어 모음체계는 원래 5모음에 장단대립이 있었으나, 장모음은 닫혀지고 단모음은 열려짐으로 인해 7모음 체계로 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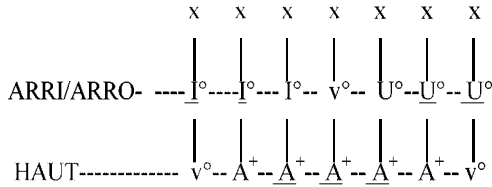
여기서 ĭ와 ē가 e로, ō와 ū가 o로 융합(fusion)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음인 ě, ɔ가 각각의 장음과 구별되어 ε와 ɔ로 되며 이 변화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변화는 바로 이 ii)의 구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ii)의 모음체계 중에서도 강세를 받은 중모음들이 이중모음화하는데 이것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지배음운론의 이론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모음체계를 지배음운론의 이론에 따라 élément을 사용하여 그 내부구조²⁾(structure interne)를 표현하면 iii)과 같다.

2) KLV(1985) 참조

iii)



[i] [e] [ɛ] [a] [ɔ] [o] [u]

(밑줄 친 *élément*은 각 분절음의 *tête*를 나타냄)

IV

이제 2.1.1 의 분류 중 이 논문에서 다룰 제약된 이중모음화(*diphtongaison conditionnée*)와 축약으로 인한 이중모음화(*diphtongaison de coalescence*)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4.1 구개음이나 구개화된 자음 앞에 놓인 강세 개모음이 이중모음화된 것은 불어에서 소위 모음+습음(*consonne mouillée*)이라고 하는 경이중모음화(*diphtongaison légère*)를 겪게 된다.

즉, 라틴어 음운변화에서 생성된 많은 이중(혹은 삼중)모음들은 중이중모음화(*diphtongaison lourde*) 되었다가 그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두 요소 중 하나가 전이음(*glide*)으로 변하면서 경이중모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두 가지 경우로 분리되는데 첫 번째 요소가 변화하는 경우와 두 번째 요소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i)-1 첫 번째 요소가 변화하는 경우

V V > V_g V (g 는 glide)

ex) a) fɛrum(ferus) > ... > fiɛro > ffiɛr

mel > ... > miɛl > mjiɛl

mei > ... > mwa

teila > ... > twale

b) noctem > ... > nɔi(t)

i)-2 두 번째 요소가 변화하는 경우

V V > V V_g

ex) folia > ... > foɛj , oculum > ... > oɛj

battalia > ... > bata:j

butticula > ... > butɛj

i)-1-a은 자발적 이중모음화(diphthongaison spontanée)에 해당하고, i)-1-b는 축약으로 인한 이중모음화(diphthongaison de coalescence)의 예이며, i)-2는 제약된 모음화(diphthongaison conditionnée)의 예이다.

i)-1이든 i)-2든 모두 앞이나 뒤에 필연적으로 모음성이 약화된 전이음이 뒤따르게 되는데 i)은 어두에 자음군이 오는 경우, 전이음에 따라 구조를 허용하는 능력에서 각각 차이가 난다.

왜 현대불어에서 경이중모음의 분포가 극히 제한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이중모음화의 생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현대불어의 전이음과 그것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불어는 3개의 전이음을 가지고 있다 : /j/, /w/, /ɥ/

그리고 이 3개의 전이음은 전이음의 특성상 다음 i), ii)의 예와 같이 항상 모음과 결합하는데, /w/, /ɥ/는 항상 모음연쇄의 첫 번째 위치에 놓이므로 /j/만이 모음의 앞 혹은 뒤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불어의 모든 모음이 이 3개의 전이음과 전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합 분포는 각각 다르다.

- i)
- a)
- je jø
 jε jœ j $\tilde{\epsilon}$ jɔ j \tilde{o}
 ja
- b)
- ij uj
- εj œj
 aj
- ii)
- a) wi
- wε w $\tilde{\epsilon}$
 wa
- b) ʋi
- ʋe
 ʋε ʋ $\tilde{\epsilon}$
 ʋa ʋɑ ʋ \tilde{a}

i)-a, b는 j+V, V+j의 분포이며, ii)-a는 w+V, ii)-b는 ʋ+V의 분포형태이다.

먼저 이들의 결합적 특성을 살펴보면, /j/은 i)-a, b처럼 전, 후설고모음과 결합할 때 반드시 두 번째 요소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으며, /w/은 특성상 후설모음과는 전혀 결합하지 않는다. /ʋ/은 위의 두 전이음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그것은 다른 모음이 뒤따른다 해도 항상 자신의 순음성(labialité)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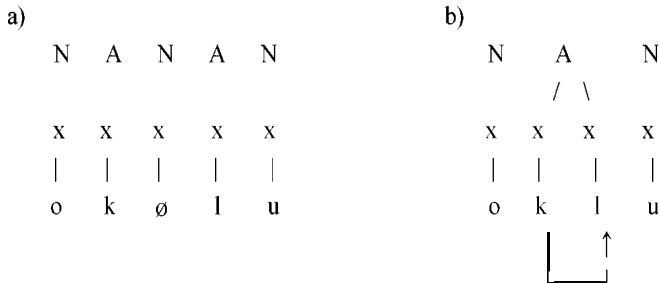
4.2 이제 제약된 이중모음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렇게 생성된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하면서 생성하는 전이음의 특성을 알아보자.

oculu(m)의 예를 살펴보자. 먼저, oculu의 장단을 표시하면 *ōcūlū*와 같다. 그런데 이 단어는 *proparoxyton*이므로 *ō*에 강세가 오고 약세위치(*position prétonique*)에 놓인 *ū*는 라틴어 초기 음운변화, 어중음소실(*syncope*)³⁾에 의해 *ōclū*로 된다.

ōcūlū > *ōklū*

(이탤릭체는 변화과정에서의 음성전사임)

지배이론에 의한 이 변화의 내부구조(*structure interne*)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ōklū*의 내부구조 *ōcūlū* > *ōklū*의 변화를 고려할 때 당연히 a)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 a)의 형태는 유지되지 못하고 b)의 형태가 된다. 그것은 b)에서 보듯이 어중음소실에 의해 모음이 탈락된 후 인접한(*adjacent*) 자음이 된 분절음 *k*와 *l*은 성분내지배(*gouvernement syllabique*)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élément* 수가 많은 *k*가 *élément* 수가 적은 *l*을 지배하는 관계에 놓여 이 둘은 하나의 음절머리(*attaque brachante*)를 이루게 된다.

*k*와 *l*이 하나의 음절머리를 이룬다는 것은 앞에 위치한 모음 *o*가 여전히 열

3) 라틴어 강세규칙에 의해 *proparoxyton*인 단어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끝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는 무강세모음(*voyelle pénultième atone*)이 탈락된다. 이것을 어중음소실(*syncope*)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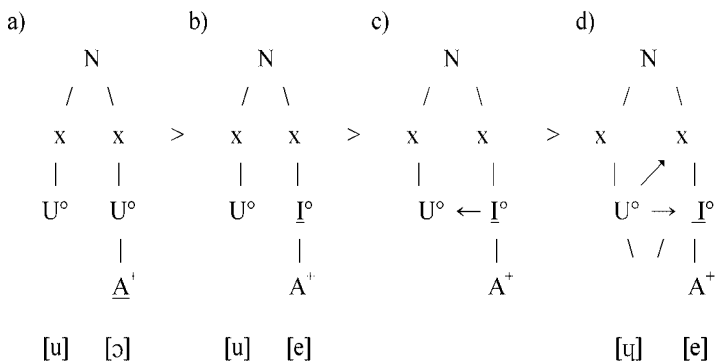
린음절(syllabe ouverte)을 구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두모음 *o*는 원래 강세 모음이므로 열린음절을 구성할 수 있고 자발적 이중모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environnement)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중모음화 현상보다 먼저 어두의 *o*가 *ɔ*로 변하고($\delta > \text{ɔ}$), 분절음 *k*와 *l*이 구개음화(palatalisation)를 겪게 되는 것이다.

oklü > *ɔlu*

이 때 구개음화가 어두모음 *ɔ*를 폐음절로 만들게 되고(entraver), 이 구개음의 조음적 강도의 영향에 의해 어두모음 *ɔ*가 이중모음화되므로 이것은 분명 뒤에 위치한 자음의 구개음화에 의한 제약된 이중모음화이다.

ɔlu > *uɔlu* ... > *uɔlo* > *uɔl*

이렇게 생성된 *uɔl*의 어두자음 *uɔ*는 이화작용을 겪은 후 앞의 *u*가 먼저 반자음화하고 다음 내부구조의 변화에서처럼 점차 현대불어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a)에서 b)로의 변화는 하나의 음절핵(noyau)을 이루는 두 모음의 segment이 이화(différentiation)되는 과정이다. 이 두 모음은 성분내지배관계에 놓이므로 앞 모음이 뒤 모음을 지배해야 한다. 그런데 지배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 모음이 구성 élément 수가 더 많음으로 이화되었다 해도 지배가 불완전해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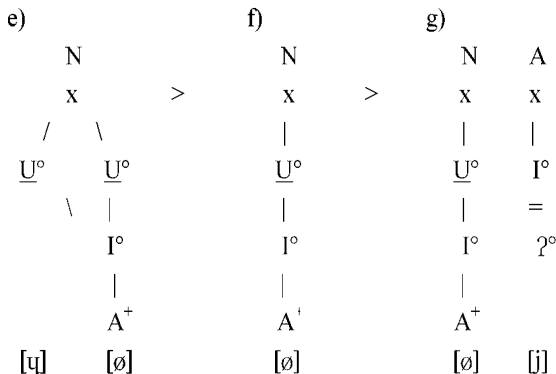
이중모음으로의 진화가 불가피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곧 이어 c)에서 보듯이 두 번째 모음의 머리요소(tête)가 앞 모음으로 전파(propagation)되는데 이때 \underline{u} 는 e와 élément I°를 공유하게 되어 굴곡구조⁴⁾를 이룬다.

그러나 élément 수에서는 같게 되어도 뒤 모음의 요소 A⁺의 양성 charme로 인해 지배는 여전히 불완전하게 되어, d)와 같이 첫 번째 모음이 두 번째 모음을 동화시키면서(여기서는 순음성을 전과함) 두 번째 모음의 골점(point squelettique)으로 전파되고 마침내 중이중모음(diphongue lourde)구조에서 경이중모음(diphongue légère)구조로 전환된다.

경이중모음구조에서는 같은 성분내지배라 할지라도 지배의 방향이 전환되어 두 번째 분절음이 첫 번째 분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즉 중이중모음의 지배 방향과는 정반대이므로, 인접한(adjacent) 두 개의 분절음이 지배관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분절음이 두 번째 분절음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élément 수나 charme의 성질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두 모음이 하나의 음절핵을 구성하면서(noyau branchant) 양자간의 지배구조의 자연스러움을 생성하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경이중모음구조를 이룬 후에도 상호간의 영향은 계속된다.



4) 이러한 지배구조를 이루는 내부구조형태를 굴곡구조(structure de contour)라 하는데 이것은 모음뿐 아니라 자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경이중모음구조를 이룬 e)를 보게 되면 양자간의 구성요소가 포함관계에 놓임을 알 수 있다. 즉 두 번째 모음이 첫 번째 모음의 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발음의 유사성), f)에서처럼 지배를 받는 첫 번째 모음이 매우 쉽게 탈락할 수가 있다. 그런 후, g)에서 보듯이 구개음 ʃ이 방해요소를 잃으면서 약화된다. 이 때 구개음 ʃ는 반자음화되어 j가 된다. 그러나 반자음 j는 구개자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전히 음절머리의 골점에 남게 된다.

4.3 세 번째 이중모음화 현상인 축약으로 인한 이중모음화(diphtongaison de coalescence)는 앞의 두 이중모음화 현상과는 달리 모음이 강세위치에 놓이는 것과는 무관하며 인접한 자음이 구개음이거나 구개음화된 자음일 경우 이 분절음이 약화되면서 축약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개음화(palatalisation)는 분절음이 강화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구개음화를 겪는 자음의 위치가 강세위치(position forte)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내파위치(position implosive)와 같이 대표적인 약세위치(position faible)에서도 구개음화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⁵⁾ 이 두 경우를 분리해서 분석하기로 하자.

4.3.1 먼저 강세위치에 놓인 자음의 구개음화로 인한 이중모음화 경우를 보면, *calciata(m)*은 끝에서 두 번째 모음 a에 강세가 오는 paroxyton이다.

kalkiata > kalkjata > ... > kalʃsada > tʃalʃsada

강세모음 a앞에 놓인 i는 위치상(position prétonique) 가장 약화되기가 쉬워서 기원전 1세기경 반모음 j로 변한다. 그 후 k는 반모음 j앞에서 구개화된 후 구개음 ʃ와 혼동이 되고 이것이 조음강화현상(renforcement articuloire)으로 인해 파찰음화(assibilation)되어 ʃs로 변화한다.

5) 전자를 진성 구개음화(vraie palatalisation)라 하고, 후자를 가성 구개음화(fausse palatalisation)라 하는데, 이것은 구개음화가 분절음의 강화(renforcement)라고 보는 시각에서 연유한 것이다.

초기 구개음화는 주로 /j/, /i/, /e/ 등 전설모음 앞에서 일어났으나, 5세기 초부터는 /a/ 앞에서도 일어난다. 따라서 어두에 놓인 k도 구개음화되어 /t/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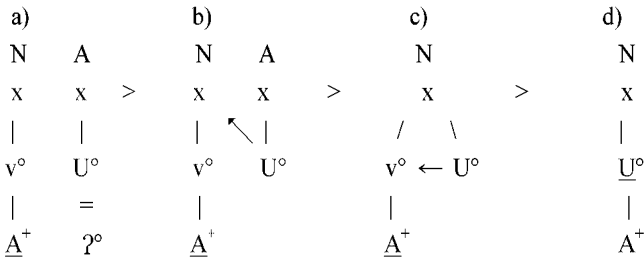
$tfalt\check{s}a\delta a > tfalt\check{s}ie\delta\theta > tfa\check{h}sie\delta\theta > tfautsie\theta$
 $> tfautsie\theta > fausie\theta > fosie\theta$

열린음절 강세모음 a가 6세기경 일어나는 Bartsch의 법칙⁶⁾(혹은 효과)에 의해 이중모음화되고, 구개음 \check{s} 는 탈구개화하여 l이 연구개 \check{h} (vélaire)로 변한다.

이 연구개 \check{h} 이 비성절성 u로 변해(vocalisation), 앞 모음인 a와 이중모음을 이룬다⁷⁾. 그러므로 이 이중모음은 강세와는 무관하게 인접자음의 구개음화에 따른 약화로 인해 생성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음절에 위치하여 약화 일로에 있던 δ 가 모음사이에서 완전히 탈락되어 $ie\theta$ 의 연쇄가 이루어진다.

위 변화의 축약 이중모음화된 부분의 내부구조 변화를 살펴보자.

$a\check{t} > au > o$



/i/ 연구개화 되어 / sombre가 되면 이것의 자음성 즉 방해 élément이 탈락되기 쉬워진다. 이것은 혀가 뒤로 말리므로 혀끝이 입천장에서 떨어지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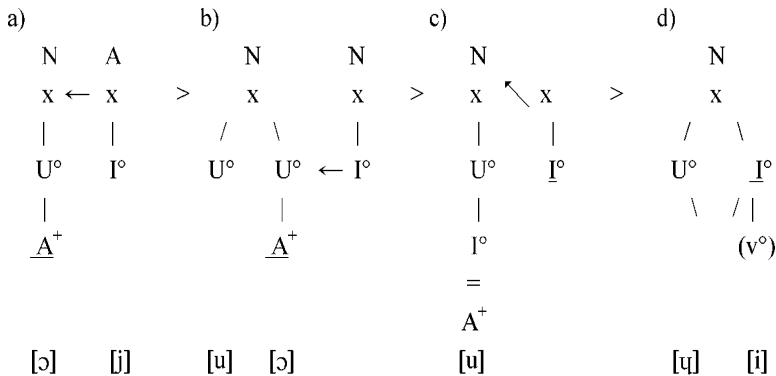
6) Bartsch의 법칙은 6세기 말경에 개음절 첫 모음인 a와 강세음절에 놓인 a가 이중모음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La Chaussée 1982 : p.113)
 7) 이러한 연구개 l이 모음화하는 것은 어말, 특히 s앞에서도 이루어져 불어형태변화 중 어미 al → aux의 공시변화는 연구개 l의 모음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지배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는 성분내지배관계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방해음 둘이 인접할 때 앞 분절음이 방해 élément을 잃게 되므로, 즉 내과위치에서 파열할 수 없으므로 뒤 분절음이 앞 분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분절음의 지배관계는 b)와 같이 성분간지배(gouvernement intersyllabique)구조가 된다. 따라서 앞 모음 *ɔ*는 여전히 막힌 음절로서 이중모음화를 겪지 않는다. 그런데 방해요소를 잃어서 약화된 *k*가 구개화되어 반자음 *j*로 되자 이 구개음의 영향으로 *ɔ*가 이중모음화되어 *uɔ*로 되는 것이다.

$$nuɔjɛ > nuɔjt > nuɔit > nujt > nuji$$

앞 모음을 이중모음화 시킨 *k*에서 유래한 반자음 *j*는 다시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반모음화하여 *uɔi*와 같은 3중모음의 형태를 띠게 된다. 3중모음의 경우 어떠한 구조로도 하나의 음절핵을 구성할 수가 없으므로⁹⁾ *j*는 독립된 글 점을 갖게 된다.

이 변화의 내부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j*는 구개음화된 *k*에서 유래하였으나 앞 모음을 경이중모음화시키면서 스스로는 완전한 모음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3중모음화된 상황에서 축약되기 위

9) KI.V(1985) 참조.

해서는 같은 *élément*은 합쳐지고 *A⁺*와 같은 양성 *charme*를 갖는 *élément*을 탈락시키고 또 *i*에서 전과된 전설성으로 인해 전설모음화됨으로써 결국 경이 중모음화하게 된다.

4.3.3 위의 예들과는 달리 축약 이중모음화에는 전이음의 삽입으로 인해 생성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때의 전이음은 구개화된 음 앞에 삽입된다.

likère > ... > *lejšere* > *leitšere* > ... > *loidzir*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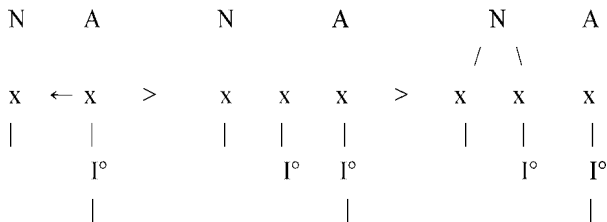
위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껏 설명했던 변화과정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이중모음의 생성이 어떤 음이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k*나 *t*가 구개음화된 후, 바로 직전위치에 비성절성 전이음 *j*가 생겨나는 현상이 일어난다.¹⁰⁾

ex) *plakere* > ... > *plajkjerē*, *ratione* > ... > *raitjone*

이렇게 첨가되는 전이음은 *j* 하나뿐이고, 다른 전이음이 첨가되는 경우는 없다. 이것으로 보아 모음과 구개음(혹은 구개화된 음)이 인접하게 될 때 전이음 *j*가 첨가되는 것은 양분절음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이음 *j*도 *élément I°*가 음절핵에 연결된 구조이며 구개자음의 으뜸 *élément*도 또한 *élément I°*이기 때문에 모음에서 강세화된 구개음으로 이어질 때 중간음으로 전이음 *j*가 삽입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아래의 내부구조변화는 구개음의 영향으로 앞 모음과 구개음사이에 전이음 *j*가 삽입되어 앞 모음과 이중모음을 이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10) La Chaussée(1982) 참조.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중이중모음은 이화작용을 거쳐 다시 경이중모음화함으로써 불어형태로 진화해 나간다.

loidzir > ... > *hwɛdzir* > *hwɛzir* > *hwazir* > ... > *hwaziR*

이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전이음 *j*의 삽입으로 형성된 중이중모음은 그 후 다시 이화작용을 거쳐 첫 모음이 반모음화되는 전형적인 경이중모음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음성변화에서 일어나는 모음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전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V

5.1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해 볼 때, 불어의 세 전이음들은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변화과정에서 중이중모음구조의 붕괴로 인해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원인과 다른 과정에서 나온 이 전이음들은 현대불어에서 음절구성 행태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4.1에서 보듯이, 다른 모음과의 결합분포도에서 *i-a*와 *ii-a*는 각 전이음들의 음성적 특성으로 인해 불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보여주는 음절구성형태의 차이도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일까?

- i) a) # CjV
- b) *# CCjV
- c) # CCijV

(* 은 현대불어에서 용인되지 않음을 의미함)

ex) pied [pje], prier [pRije] *[pRje], crier[kRije] *[kRje]
 priant [pRij̃] *[pRj̃]

- ii) a) # CwV
 b) # CCwV

ex) moi [mwa], croix[crwa]

- iii) a) # CɣV
 b) # CCɣi

ex) nuage[nɥa:ʒ] , fruit[fRɥi]

i), ii), iii)에서 a)의 음절구조는 모두 다 허용된다. 즉 어두에 자음이 하나만 오는 경우는 세 전이음 모두 음절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b)에서는 3자음이 서로 다른 행태를 보여준다. 우선 b)의 구성조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iv)	1	2	3	
	# (C)	C	C	V
	(+spirant)	-syll	-syll	
	(-sonore)	-sonore	+ lat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절구조는 다음과 같다.

v)	1	2	3	
	# (s)	p	l	V
		t	r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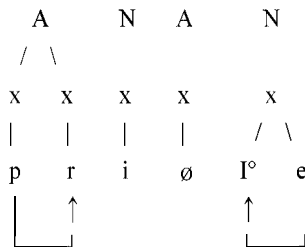
iv)의 도식은 불어의 어두자음군은 반드시 (무성마찰음)+무성방해음+유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방해음이 연속으로 어두에 놓일 수는 없다.¹¹⁾ 그래서 iv)에 의해 가능한 모든 결합은 v)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

11) 장재성(199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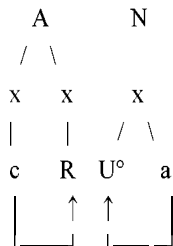
이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위의 b)를 고려해보면, /j/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두자음군을 용인(autorisation)할 수 없으며, /w/는 어두 3자음군을 제외하고 어두 2자음군은 용인할 수 있다. /w/은 어두 2자음군만 용인하되, 뒤에 오는 모음이 반드시 /i/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음절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왜 /j/는 어두자음군을 용인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다음에서 *prier*[pRije]와 *croix*[kRwa]의 내부구조를 살펴보자.

i)



ii)



지배적 관점에서 i), ii)구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w/를 포함하는 음절핵이 인접한 앞의 음절머리를 용인할 수 있는 반면, /j/는 같은 상황에서 직접 용인할 수가 없으므로 모음 /i/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élément*의 지배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제기에 만족하기로 하고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VI

19세기 초 유럽에 산스크리트어의 존재가 알려지자 그 당시 언어학자들은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야말로 그리스어, 라틴어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세 언어의 비교연구가 진행되면서 산스크리트어가 그리스어, 라틴어의 조상이 아니라 공통조어로부터 나온 것임이 밝혀지자 본격적으로 언어분류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결국 인도유럽어라는 거대한 동족어군을 지리적, 언어적 특징별로 분류하는데 성공을 했다.

인도유럽어족으로 밝혀진 많은 언어계열 중에서도 라틴어계열의 언어들은 언어의 변화과정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라틴어와 그 후손격인 불어는 음운뿐 아니라 통사구조가 이미 완전히 달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화과정이 학자들에 의해 아주 잘 밝혀져 있다. 사실 현재 사전에 등재된 불어단어들의 70% 이상이 바로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 라틴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불어로 변화하였는가라는 문제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그 변화과정 중에서도 가장 흥미있는 현상의 하나인 이중모음화와 단모음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모음의 음량(quantité)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음색(timbre)의 변화를 겪기 시작했던 라틴어 모음들은 자음변화와는 달리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강세모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중모음화되기 시작한다. 그 후 인접자음의 영향을 받은 강세모음 혹은 약세모음까지도 구개음화된 자음의 영향을 받아 이중모음화되는데 자음의 조음강화의 일종인 구개음화가 앞 모음을 이중모음화시키거나 또는 그 자신이 반자음이 되어 앞 모음과 합쳐져서 이중모음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소위 중이중모음들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약화되어 한쪽모음이 전이음화되어 전부 경이중모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음성적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 여기서는 지배음운론의 지배이론을 적용하여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물론 이 이론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 흐름이 개연성이

나 필연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기서 다 밝히지 못한 구개음화를 비롯한 여러 자음변화 현상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BIBLIOGRAPHIE

1. 지배음운론 분야

- Harris, John (1990), "Segmental complexity and phonological government", *Phonology* 7: 255-300.
- Kaye, Jonathan (1989b), "Coda licencing", Ms. SOAS-University of London.
- Kaye, Jonathan (1992), "Derivations and Interfaces", *Phonologie Yearbook*:90-126.
- Kaye, Jonathan, Jean Lowenstamm & Jean-Roger Vergnaud (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In *Phonology Yearbook* Vol.2: 305-328.
- Kaye, Jonathan, Jean Lowenstamm & Jean-Roger Vergnaud (1987), "Constituent structure and government in phonology", *Paper presented at GLOW meeting, Venise*.
- 장재성 (1994), 불어의 자음 연쇄의 내부 구조, 서울 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연구소
- 장재성 (1996), 불어의 음운론적 지배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 장재성 (1997),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언어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음성적 변화의 몇몇 지배적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2. 통시분야

- Andrieux-Reix, Nelly (1993), *Ancien et moyen français*, PUF.
- Bourciez, E. et J. (1982), *Phonétique française*, C. Klincksieck, Paris.
- Brunot, Ferdinand (1966), *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Armand Colin, Paris
- Carton, Fernand (1974), *Introduction à la phonétique du français*, Bordas, Paris
- Chaussée, François (1982), *Initiation à la phonétique historique de l'ancien français*, Klincksieck, Paris.
- Chen, U. F (1973), *Essai sur la phonologie française*, Nizet, Paris.

- Ernout, Alfred (1974), *Morphologie historique du latin*, Klincksieck, Paris
- Fouché, Pierre (1952), *Phonétique historique du français*, Klincksieck, Paris
- Maniet, Albert (1975), *La phonétique historique du latin*, Klincksieck, Paris
- Martinet, André (1973), "La palatalisation du roman septentrional",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11.
- Picoche, Jacqueline (1979), *Précis de morphologie historique du français*, Fernand Nathan, Paris.
- Pope, M. K. (1952), *From Latin to modern French with especial consideration of Anglo-Norma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erbat, G. (1980) *Les structures du latin*, Edition a. & J., Picard, Paris.
- Straka, Georges (1965), "Naissance et disparition des consonnes palatales dans l'évolution du latin au français",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3.
- Wartburg, W.v. (1971), *Evolution et structure de la langue française*, A. Francke AG Verlag Bern.

《Résumé》

Diphthongaison et monophthongaison du latin au français

Chang Chae Seong

Dès le premier siècle le latin connaît le grand bouleversement vocalique (passage d'une opposition de quantité à une opposition de timbre), ce qui entraîne le changement du latin parlé dont le plus important est le phénomène de diphthongaison.

La diphthongaison commence par la voyelle accentuée en syllabe ouverte. Et puis elle s'étend jusqu'à la voyelle accentuée ou non accentuée suivie par la consonne palatalisée.

Il se distingue donc 3 grands types de formation de diphthongues:

-- la diphthongue d'une voyelle accentuée, ce processus se différenciant lui-même en 2:

i) la diphthongaison spontanée, pour toute voyelle accentuée en syllabe libre et pour toute voyelle d'un monosyllabique tonique.

ii) la diphthongaison conditionnée, limitée aux voyelles ouvertes accentuées lorsqu'elles se trouvent devant un son palatal ou palatalisé.

-- la coalescence

iii) la diphthongaison de coalescence, cela résulte de l'union d'une voyelle et d'un son semi-vocalique d'une origine d'un son palatalisé.

Au début, les diphthongues latines étaient lourdes parce qu'elles avaient deux points squelettiques en un noyau. Au fur et à mesure de l'évolution, elles en perdent un pour avoir la structure de contour, ce qui veut dire qu'elles sont devenues les diphthongues légères dont un son est devenu le glide.

La diphtongue française issue du latin est donc classée dans les sons vocaliques instables se définissant comme la prononciation en une seule syllabe de deux sons dont le premier est une voyelle et l'autre une semi-voyelle.

Nous avons analysé les phénomènes de diphtongaison d'après la théorie de KLV, qui a pour but d'expliquer tous les phénomènes phonologiques par des compositions et des décompositions des éléments.

Cette théorie nous fait voir qu'il y a une unité dominante d'une certaine forme en relation avec une ou plusieurs unités subordonnées dans tous les phénomènes phonologiques.

En appliquant cette théorie aux phénomènes diphtongaisons du latin au français, nous avons cherché à éclaircir la plausibilité des phénomènes phonologiques et à en éclaircir le cours naturel.

Avec cette théorie, on n'a pas espéré résoudre tous les phénomènes, mais on a pu avoir la possibilité d'y accéder d'une façon explicative.